

학생의 영어교사신뢰와 영어학습변인의 관계

한경진·심재우

(전북대학교)

Han, Kyoungjin & Shim, Jaewoo. 2009.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rners' confidence in their non-native English teachers and affective variabl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4). 159-17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rners' confidence in non-native Korean teachers of English and their affective variables of self-efficacy, anxiety, intrinsic & extrinsic motivation, class participation, and self-directed leaning. In order to understand factor structures of subjects' confidence of their non-native English teachers and the extent to which students perceived themselves on affective variables,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196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from the subjects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factor analysis revealed that subjects' confidence in their non-native teachers consisted of three dimensions of ideas: the teacher's competence, dependability and friendliness. The further statistical analysis of non-native teacher confidence held by the subjects via grouping them using cluste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ubjects with high level of teacher confidence tended to have high levels of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classroom particip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addition, the t-test result on the sex differences in the dimensions of confidence showed that girls had statistically higher mean scores in dependability and friendliness than boys. Although the direction of influence among the variables in this study is not clear,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we need to consider learners' confidence in non-native teachers as an important construct in teaching and learning of English.

Key Words: non-native English teacher, teacher confidence, self-efficacy, motivation, self-autonomy

1.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속히 세계화, 국제화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한국인들에게 전공이나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제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지식·정보화 사회로 특징되는 21세기의 교육을 위해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바뀌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영어 과목에 대해서 더 많은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비록 학생의 책임과 자율성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일지라도 교사는 그 교육과정이 목적한 바에 따라 수업이 성공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교사의 역할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이길영, 2001). 학습자가 학습자 중심의 영어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영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아래 영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영어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함께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신뢰이다. 신뢰란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함을 뜻한다. 학교는 교육공동체로써 그 안에서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대감, 친밀감 그리고 신뢰감을 가지고 협동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신뢰도가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어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영어교사신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영어교사신뢰가 학습자의 영어 학습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영어교육의 모형을 그리는데 기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는 이숙정과 한정신(2004)이 개발한 교사신뢰척도를 이용하여 영어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인식한 영어교사 신뢰와 학생들의 영어학습의 정의적 요인(자기효능감, 영어불안, 내적·외적동기, 수업참여도, 자기 주도적 학습)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더 나은 영어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인식한 영어교사신뢰는 어떤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영어교사신뢰의 요인을 근거로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군집별로 영어교사신뢰와 학습에 관한 요인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남녀 성별에 따라 영어교사신뢰도와 영어 학습변인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영어교사신뢰도를 알아보고, 영어교사신뢰가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영어교사와 학습자의 효과적인 영어교육에 중요한 자

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2. 이론적 배경

2.1 학생이 인식한 영어교사 신뢰에 대한 연구

2.1.1 학교에서의 신뢰에 대한 연구

신뢰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McAllister, 1995; Tschanne-Moran & Hoy, 1997; Kesner, 2000; Wubbels & Vrekemans, 2005; O'Conner & McCartney, 2007; Lee & Schallert,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신뢰의 개념의 시대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신뢰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뢰의 개념은 시대나 학문적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교에서의 신뢰는 교사와 교장선생님과의 신뢰, 동료선생님들 사이의 신뢰, 교사와 조직 간의 신뢰,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로 5가지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Wubbels & Vrekemans, 2005). Hoy와 Tschanne-Moran (1999)는 선생님에게 있어서 동료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간의 신뢰가 학교 신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Adams와 Christenson(2000)은 선생님과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 학생의 수행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과의 높은 신뢰도가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Goddard & Hoy, 2001). 학교신뢰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교사의 행동에 대한 지각이 학생의 기대와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이숙정, 2006). 이는 교사중심의 입장 뿐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와 학생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제시해주었다.

2.1.2 학생이 인식한 교사신뢰와 신뢰의 구성요소

학생의 교사신뢰란 “학생이 교사의 인지적 · 정서적 · 도덕적 특성에 기초하여 의심 없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태도”이다. 학생의 교사신뢰는 여러 요인들의 특성과 관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이숙정과 한정신, 2004). 이숙정과 한정신 (2004)은 능력(ability), 개방성 (openness), 믿음 (reliance), 친밀감 (intimacy), 돌봄 (careness) 그리고 성실 (integrity)을 신뢰도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능력이란 어떤 구체적인 특정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기술, 역량, 그리고 특성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역량이나 전문성 뿐 아니라 노력이 능력의 한 요소로서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개방성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의견을 성실하게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의심스럽거나 적절하지 못한가를 검토하고 그것을 기꺼이 수정하고 재구성하려는 태도로서 충분하고 진실한 정보를 타인과 기꺼이 공유하며 상호비밀을 소유하지 않고 대화하려는 태도이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믿음이다. 믿음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함으로써 그의 말과 행동에 의지하는 태도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조직과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가 믿을 만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인 친밀감은 상대방과의 강한 결속감이나 연대감을 가짐으로서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친밀감은 성별, 나이 등의 인구학적 배경 뿐 아니라 외모, 성격, 태도, 관심이 상대방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형성은 외모적 유사성보다는 신념이나 가치관, 관심과 흥미 등에 대한 유사성에 더 영향을 받는다. 다섯 번째 구성요소는 돌봄이다. 돌봄은 타인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갖고 타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갖는 태도이다. 돌봄은 보편적이고 공정한 원리나 의무감과 대조되는 것으로 구체적 타인에 대한 특별한 감정으로서 단순한 좋은 의도나 선한 의지이다. 마지막 구성요소는 성실성이다. 성실성이란 공동체의 전통적인 도덕적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진실성, 정직성, 공정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관계를 형성하면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신뢰도는 역동적이고 변화가능성이 크다(이숙정, 2006).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연구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설재연(2006)은 학생의 교사신뢰가 학생의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신뢰가 높은 학생이 교사신뢰도가 낮은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적응을 잘 했으며 학습동기가 높다고 제시하였다. 장현석(2007)은 학생의 교사신뢰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신뢰 중 믿음이 학습태도의 흥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신뢰 중 능력, 지원, 믿음, 개방성이 학습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해정(2007)은 학생들의 과학교사에 대한 신뢰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과학교사를 신뢰하는 학생들의 과학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영어 학습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2.2.1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애매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긴장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이다(Mills, Pajares & Herron, 2007).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Pajares(1996)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고 여학생이 언어에 대한 강한 자기효능감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학생의 수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학업성취와 관련되어 이루어져왔으며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김영미와 김아영, 1998). 이진숙(2005)은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와 학습태도와 관계가 있으며 영어과 학습활동에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과제해결의 집중력, 자기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영어수업시간에 학습활동과 관련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2.2.2 영어불안감(anxiety)

누구나 새로운 상황에 처하면 먼저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영어라는 새로운 제 2언어를 배울 때 학습자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영어불안감은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중요한 정의적 요인이다.

외국어 불안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불안감이 언어 학업성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불안감이 학습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외국어 불안감은 외국어 수행, 학과 성적, 자신의 외국어 능숙도에 대한 자기 평가 등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박정숙, 1996). 학습에서 불안 심리와 학과 성적 사이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듯이 높은 외국어 학습 불안은 외국어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Macintyre & Gardner, 1989). 백선희(1986)는 불안과 학업성취도 간에는 부정적 관계가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습·시험능력에 대한 불안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낮다고 했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불안감이 학업성취에 방해요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반해 전윤식(1976)은 모든 연구결과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불안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학습자의 지적수준, 학습과제의 성격, 곤란도 그리고 지능 등과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2.3 내적동기와 외적동기(motivation)

Brown(2000)은 동기란 실질적으로 어떤 복잡한 일의 성공이나 실패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포괄적인 용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동기는 제2언어학습에서 학습에 부여하는 목적에 따라 도구적 동기와 통합적 동기가 있으며 동기가 생기는 관점에 따라 외부에서 오는 외적 동기와 학습자의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동기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내적동기, 외적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행위를 경험함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즐거

움을 느끼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 그 자체에서 그 무엇을 얻으려 할 때 나타나는 동기가 내적인 동기가 되고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이 행위 그 자체 이외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동기가 외적 동기이다. 학교의 교과과정, 부모와 사회의 기대, 각종 시험, 경제 활동, 경쟁 사회 등과 같은 외부적 압력이 외적 동기를 지나차게 배양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외적동기보다 내적 동기가 영어 학습에 보다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비교를 통해 내적동기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서 보상이나 다른 외적 동기가 학습의 내적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내적동기가 외적 동기보다 학습을 할 때 월등히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이효웅, 1996). 1990년대부터 내적동기와 외적 동기에 관한 새로운 시점에서 연구가 시행되었다. 즉, 외적 동기로 인해 일어난 행동과 내재적인 자기 결단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행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 영어 학습에 높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므로 외적동기와 내적 동기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요소로 보았다(Skinner & Belmont, 1993). 박혜숙(2006)은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초기에 일어났던 외적 동기와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내적동기가 함께 작용 할 때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가 가장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교사신뢰에 대한 연구 중에서 특히 교사신뢰와 동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김정화와 이언주(2006)는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와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신뢰와 학습동기가 상호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영숙(2006)은 교사유형, 교사신뢰와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신뢰와 학습동기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신뢰가 높을수록 학생의 학습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신뢰의 하위요인 중에서 친밀감과 학습동기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2.2.4 수업참여도(classroom participation)

수업참여란 '수업시간동안 자발적,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즉, 학생들이 수업과 관련하여 드러내는 수업 전, 중, 후 활동 즉, 예습, 수업 자료 준비 등의 수업 전 준비 활동과 질문, 발표, 토론 활동 등의 수업 중 활동 그리고 과제, 복습 등의 수업 후 활동의 적절성 및 적극성의 정도와 학생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지, 수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의 수업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및 애착의 정도를 의미한다(김태영, 2006).

학생의 수업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와 학업성취간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도와 수업참여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학교수업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학업성적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김정자, 2004). 김정원과 김병숙(2004)

은 교사-학생관계가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수업태도 및 참여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연구를 통하여 밝힌바 있다. 또한 김태영(2006)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수업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적과 수업 참여도 사이에 정적 관계임을 나타냈다. 또한 수업참여도와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즉, 교사-학생관계를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한다.

2.2.5 자기 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최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습자 중심 교수법’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수업현장에서 이러한 교수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영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으로 지도하는 교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느끼도록 해 주는 일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학습 방식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학습자가 자신을 보는 방법, 그들의 재능과 경험을 다른 학습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교실 상황을 뛰어넘는 학습, 즉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Brown, 2000).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 자신의 내적 에너지에서 발산되는 내발적 동기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평가함에 따라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전제로 한다.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어떤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학습 목표 달성자체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계획, 실천, 평가의 순환과정이다. 이 학습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중시하며 학습자의 선행 경험을 중요한 학습 자료로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며 자기 주도적 학습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교사, 동료, 교재,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조력자들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승호, 2005). 최근 자기 주도적 학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전병락(2002)은 영어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지속적인 쓰기 활동은 학습자들의 쓰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통제방법보다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은 쓰기 능력 뿐 아니라 다른 영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학습 능력에 전이효과를 주었으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쓰기 활동은 통제 방법보다 학습자들의 학습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흥미를 높여준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전라북도 두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주시의 고등학교에서 4학급을 대상으로 104명의 학생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익산시의 고등학교에서는 3학급을 대상으로 94명의 학생들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총 19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성실한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196명을 이 연구의 자료처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측정도구

3.2.1 영어교사신뢰도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신뢰를 검사하기 위하여 이숙정과 한정신(2004)에 의해 개발되고 타당화된 교사신뢰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교사신뢰검사 척도는 개방성, 능력, 성실성, 돌봄, 믿음, 친밀감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영어수업과 영어교사에 맞게 총 15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에서 '매우 그렇다' (6)의 리커트식 6점 척도로 되어있다.

3.2.2 학생들의 영어학습변인 측정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영어불안감, 내재적·외재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이옥주(1998)가 개발한 검사지를 이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수업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정희(2004)가 수정한 학생의 수업참여도 척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지자, 김인아와 안현미(2000)가 개발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영어 학습에 관련되도록 수정하였고 각각 5문항을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학생들이 인식한 영어교사신뢰도의 3요인

영어교사신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숙정과 한정신(2004)이 개발한 교사신뢰척도를 영어 교육현장에 맞게 15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영어교사신뢰에 관한 15개의 문항은 설문지로 검사한 다음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주성분 분석방법(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고유값(Eigenvalue)을 1 이상으로 추출하였으며 Varimax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학생들이 인식한 영어교사신뢰에 관한 설문항목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KMO값은 0.848로 비교적 높은 값이 나타났다. Bartlett's Test의 구형성검정치 (Sphericity)는 982.285이고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요인분석의 결과 학생들이 인식한 영어교사신뢰에 관련된 15개의 문항은 3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수의 53.5%를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KMO의 값이 .80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의 검정치가 982.285이고 이 값의 유의확률이 .001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은 추출된 3요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3요인의 고유치는 각각 5.394, 1.435, 1.192로서 이것은 요인추출 기준으로 지정한 고유치 1 이상인 요인만 추출된 것이다. 이 3요인은 각각 영어교사신뢰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1은 35.96%, 요인 2는 9.57%, 요인 3은 7.95%를 설명함으로써 전체(누적) 53.48%를 설명하고 있다.

표 1. 3가지 요인에 대한 고유값, 분산, 및 누적비율

성분	초기 고유값			회전 제곱합 적재값		
	전체	% 분산	% 누적	전체	% 분산	% 누적
1	5.394	35.963	35.963	3.323	22.150	22.150
2	1.435	9.564	45.527	2.670	17.799	39.950
3	1.192	7.950	53.477	2.029	13.527	53.477

다음에 제시된 표 2는 영어교사신뢰의 요인계수 행렬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어교사신뢰도 측정을 위한 15개의 변수는 3개의 요인으로 묶어졌음을 알 수 있고 각각의 요인에 속하는 변수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각각의 요인들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분석하여 서로간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요인 1은 영어교사의 수업능력이라 정하였다. 요인 2는 영어교사에 대한 믿음으로 학생들이 인식한 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낸다. 또한 요인 3은 영어교사와의 친밀감으로 정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측정의 정확성이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교사신뢰의 하위요인별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영어교사신뢰의 하위요인 중 수업능력은 Cronbach $\alpha=.83$ 이었고 믿음은 Cronbach $\alpha = .67$ 이었다. 또한 친밀감은 Cronbach $\alpha=.65$ 로 측정되었다. 신뢰도가 0.60 이상이면 측정도구를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학생들이 인식한 영어교사신뢰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수업능력, 믿음, 친밀감으로 나타났다. 이숙정과 한정신(2004)은 교사신뢰도의 구성요인으로 개방성, 능력, 성실성, 돌봄, 믿음, 친밀감으로 보았다.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 한 결과 영어교사 신뢰도의 구성

요소로 능력, 믿음, 친밀감으로 나타났으며 이숙정과 한정신의 교사신뢰도 구성요인과는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그동안 시행되었던 교사신뢰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거나, 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담임과 학급담임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차이를 보인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에서는 목표언어인 영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어 학습과정을 다루는 영어 교과담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앞서 실시되었던 선행연구의 교사신뢰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영어교사를 인식하는데 한하여 능력, 친밀감, 믿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나타났으며 비록 연구결과 영어교사신뢰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구인타당도를 통하여 위에서 제시한 영어교사신뢰의 세 가지 하위요인은 이 연구에서 타당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 2. 영어교사신뢰도의 요인계수 행렬

	factor		
	능력	믿음	친밀감
item1 영어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707	-.152	.280
item2 영어선생님은 영어수업 준비를 철저히 한다.	.729	.169	.170
item4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킨다.	.498	.475	.119
item5 영어선생님은 학생들을 성실하게 보살펴준다.	.585	.363	.319
item6 *영어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520	.334	.342
item7 영어선생님은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695	.267	.172
im12 영어선생님은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723	.080	-.099
item9 *선생님 앞에서 발표할 때면 불안 할 때가 있다.	-.084	.415	.224
item10 영어선생님은 나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131	.747	-.022
item11 영어선생님은 수업 중 실수가 있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정하신다.	.336	.629	-.106
item13 *영어선생님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153	.655	-.099
item15 영어선생님은 내가 털어놓은 비밀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196	.573	.303
item3 *영어선생님은 나와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098	.281	.760
item8 영어선생님과 나는 비슷한 점이 많다.	.216	-.008	.765
item14 나는 영어선생님을 모범적인 분이라고 믿는다.	.412	.332	.463
고유값	5.394	1.435	1.192
% 분산	22.150	17.799	13.527
% 누적	22.150	39.950	53.477

*문항은 역산문항

4.2 군집분석결과

두 번째 연구문제는 영어교사신뢰의 요인점수를 기초로 나누어진 군집별 영어교사신뢰도와 영어학습의 변인(자기효능감, 영어불안, 내적·외적동기, 영어수업참여도 자기 주도적 학습)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3개의 요인들에 대한 역량군을 도출하기 위해서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교사신뢰에 대하여 유사성을 지닌 3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군집 1은 전체 응답자 중 31명이 해당하며 영어교사신뢰도를 형성하는 3개의 요인에 대한 점수의 평균이 높은 그룹에 해당하였다. 군집 2은 전체 대상 중 129명이 속하였으며 영어교사신뢰도의 요인 점수는 세 군집 중 중간으로 표시되었다. 마지막 군집 3은 전체 연구대상 중 39명의 학생이 속한 집단으로 영어교사신뢰도에 해당하는 요인에 대한 점수가 다른 군집에 비해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표 3. 군집별 영어교사신뢰의 요인 차이 기술

	군집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류
수업능력	1 (상)	31	5.24	.35	.06
	2 (중)	129	4.20	.51	.04
	3 (하)	36	3.51	.66	.11
	Total	196	4.24	.72	.05
믿음	1 (상)	31	5.03	.63	.11
	2 (중)	129	4.28	.58	.05
	3 (하)	36	3.27	.75	.12
	Total	196	4.22	.81	.05
친밀감	1 (상)	31	4.61	.59	.10
	2 (중)	129	3.31	.63	.05
	3 (하)	36	2.00	.44	.07
	Total	196	3.28	.96	.06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군집을 영어교사신뢰의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영어교사신뢰 점수가 높은 군집 1을 '상'그룹이라고 정하였고 영어교사신뢰도 점수가 낮은 군집 3을 '하'그룹으로 정하였다. 영어교사신뢰도 점수가 군집1보다 낮고 군집 3보다 높은 군집 2는 '중'그룹으로 정하였다.

4.3 군집에 따른 영어학습변인

영어교사신뢰의 하위요인을 근거로 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영어교사신뢰가 높은 상집단, 신뢰가 중간인 중집단, 그리고 영어교사신뢰가 낮은 하집단으로 그룹이 나뉘졌다. 이를 근거로 하여 군집별 영어학습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측정도구의 측정의 정확성이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 학습 변인들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Cronbach $\alpha=.83$), 영어불안 (Cronbach $\alpha=.75$), 내적동기 (Cronbach $\alpha=.74$), 외적동기 (Cronbach $\alpha=.65$), 수업참여도 (Cronbach $\alpha=.75$),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Cronbach $\alpha=.75$)로 나타났다. 모든 학업변인들이 .05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사신뢰를 바탕으로 나누어진 군집별로 영어 학습변인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전에 각 군집별 자기효능감, 영어불안, 내적동기, 외적동기, 수업참여도, 자기 주도적 학습의 평균을 알아본 결과 영어불안감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 학습변인들은 영어교사신뢰가 높은 군집일수록 높은 평균을, 영어교사신뢰가 낮은 군집일수록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영어불안 감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그룹 '상'에서는 영어불안감이 가장 낮은 평균을 보여준 반면 그룹 '중'은 그룹 '하'보다 영어불안도가 높아서 가장 영어불안도가 높은 그룹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에 제시되어있는 표 4는 일원배치 분산 분석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자아효능감에 대하여 상-중, 중-하, 하-상 집단은 각각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영어불안에 대하여 상-중, 중-하, 하-상 집단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 학습변인인 내적 동기는 상-중, 중-하, 하-상 집단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네 번째 영어 학습변인, 외적 동기는 상-하, 중-하, 하-상 집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상-중 집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의 영어수업 참여도를 살펴본 결과 상-중, 중-하, 하-상 집단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상-중, 중-하, 하-상 집단은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군집별 영어 학습요인의

종속변인	(I)워드방법	(J)워드방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자기효능감	상	중	.88*	.18	.001
		하	1.41*	.22	.001
	중	상	-.88*	.18	.001
		하	.53*	.17	.01
	하	중	-.53*	.17	.01
		상	-1.41*	.22	.001

종속변인	(I) 워드방법	(J) 워드방법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영어불안	상	중	-.45	.20	.08
		하	-.34	.24	.37
	중	상	.45	.20	.08
		하	.11	.19	.84
	하	중	-.11	.19	.84
		상	.34	.24	.37
	상	중	.76*	.18	.001
		하	1.68*	.21	.001
내적동기	중	상	-.76*	.18	.001
		하	.92*	.17	.001
	하	중	-.92*	.17	.001
		상	-1.68*	.21	.001
외적동기	상	중	.55	.24	.08
		하	1.13*	.29	.001
	중	상	-.55	.24	.08
		하	.58*	.23	.04
수업참여도	하	중	-.58*	.23	.04
		상	-1.13*	.29	.001
	상	중	.78*	.17	.001
		하	1.51*	.21	.001
자기주도적학습	중	상	-.78*	.17	.001
		하	.73*	.16	.001
	하	중	-.73*	.16	.001
		상	-1.51*	.21	.001
자기주도적학습	상	중	.69*	.18	.001
		하	1.19*	.22	.001
	중	상	-.69*	.18	.001
		하	.49*	.17	.01
	하	중	-.49*	.17	.01
		상	-1.19*	.22	.001

표 4에 따르면 군집별 영어교사신뢰는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와의 관계가 자기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Furrer와 Skinner(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동이 자신을 대하는 교사의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허은호 (2001)의 연구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교사신뢰도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신뢰와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는 교사신뢰도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이다. 연구 결과 내적동기는 군집별 영어교사 신뢰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와 학습동기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김정화과 김언주(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적동기는 상그룹과 중그룹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외적동기가 외적 보상을 기대하며 언어연습을 하는 것이므로 영어교사의 칭찬 뿐 아니라 영어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거나 영어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혹은 영어대회에 나가 상을 받는 등의 다양한 외적 보상에도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내적·외적 동기는 교사 신뢰도의 하위요인 중 친밀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영숙(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임영숙은 교사신뢰와 학습동기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교사 신뢰 중 친밀감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어교사신뢰를 기준으로 나누어진 각 군집별로 학생들의 영어수업 참여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김태영(2006)의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그의 연구 결과,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와 반대로 교사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교사신뢰가 영어수업참여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영어교사신뢰의 군집들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둘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영어교사신뢰도가 높을수록 자기 주도적 학습이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한다. 교사신뢰연구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물지만 자기 주도적 학습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습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적 대화인 수업 대화를 조정함으로서 학습자들이 자기의 학습을 재구조화 하는 것을 도와서 의도된 학습성과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정숙경, 2001).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생 스스로의 학습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면 할수록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어불안감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정의적 요인이다. 이 연구에서 영어교사신뢰와 영어불안이 어떤 관계인지 를 살펴본 결과, 영어교사신뢰도와 영어불안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교실에서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인 영어를 배우는 영어수업의 특성상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영어교과에서의 학생들의 불안도가 높을 것이다. 하지만 영어불안은 교실에서 영어교사 뿐 또래 친구집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교사신뢰도와 학습 불안간의 상관관계를 설명에 대하여 신장환(2004)은 그의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불안에 관해 교사의 요인은 학습자의 불안과 크게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영향력도 미비하다고 주장하였다. 교사신뢰와 학습 불안의 상관관계가 낮은 이유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안의 경우 교사의 요인보다는 또래의 친구집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교실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상대

적으로 많은 또래친구집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와 이 연구의 결론에 근거하여 영어불안은 교사신뢰도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른 외적인 변인들과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4.4 성별에 따른 영어교사신뢰와 영어학습의 차이

이 연구는 남학생 138명과 여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영어교사신뢰와 영어 학습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남·여 성별에 따른 교사신뢰도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유의확률
교사신뢰	남	138	3.94	.68	-3.08	.001
	여	58	4.26	.59		
수업능력	남	138	4.20	.75	-1.27	.20
	여	58	4.34	.66		
믿음	남	138	4.07	.80	-4.04	.001
	여	58	4.57	.72		
친밀감	남	138	3.16	.95	-2.75	.01
	여	58	3.56	.96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남: 4.07, 여: 4.57)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05$). 친밀감(남: 3.16, 여: 3.56)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5$). 그러나 수업능력은 여학생(4.26)이 남학생(3.94)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위요인 중 친밀감과 믿음요인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영어교사를 믿고 의지하며 또한 영어교사와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교사신뢰도 연구에서 남녀 성별간의 교사신뢰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임영숙(2008)의 연구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체적인 신뢰점수가 높게 나타나 교사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ker(2006)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교사와 갈등이 적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 학습활동, 교내 생활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박희자(200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높고 성격이 원만하며 남학생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욕구가 강하여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

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 맷음말

이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아래 현재 한국의 영어학습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인식한 영어교사신뢰와 학생들의 영어학습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논문이다. 교육학 분야에서 교사신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영어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사신뢰에 관한 연구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영어교사신뢰와 학생들의 영어학습의 상관관계의 제시가 시의적절하다 여겨진다. 이 연구의 결론에 근거하여 영어교사신뢰의 하위요소는 수업능력, 친밀감, 믿음이며 학생들은 영어교사의 친밀감이나 믿음보다 수업능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친밀감이나 믿음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교사의 대한 신뢰와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미치는 정의적 요인(자기효능감, 내적동기, 수업참여도, 자기 주도적 학습)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영어교사를 신뢰 할수록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내적동기,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수업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현 교실현장에서 영어수업은 영어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어수업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의 영어교사에 대한 높은 신뢰 아래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들 -자기효능감, 내적동기, 수업참여도, 자기 주도적 학습 -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영어교사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어교사를 더욱 신뢰하며 교실수업에서 영어교사의 지도아래 교사의 가르침과 수업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이루는 길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영어교사는 학생들의 교사신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고 학생들이 즐겁고 흥미로운 영어수업을 위하여 영어교사를 신뢰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호. (2005).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영어 학습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호남대학교.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정원· 김병숙. (2004). 학생이 지각한 교사특성과 학문적 자아개념 및 학습태도와의 태도, *아동교육* 13(2), 253-262.
- 김정자. (200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적 태도에 따른 학생 수업참여도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정화· 김언주. (2006). 아동이 지각한 교사신뢰 및 학습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연구* 15(2), 117~129.
-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력과의 관계, *한국교등교육* 12(1), 177-209
- 김태영. (2006).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정숙. (1998). 영어회화수업에서 불안심리와 학습동기가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3(1), 73-102.
- 박혜숙. (2006). 동기와 언어불안감이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4), 219-241.
- 박희자. (2003).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 및 부모의 태도와 학교적응간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백선희. (1986). 불안수준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설재연. (2006). 학생의 교사신뢰,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신장환. (2004).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학습태도, 부모의 양육 태도 및 교사의 태도가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 이길영. (2001). 영어교사 및 영어 학습에 대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식 비교, *Foreign Languages Education*. 8(2), 101-132.
- 이숙정. (2006). 중·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이숙정· 한정신. (2004). 교사신뢰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 연구* 18(3), 23-39.
- 이옥주. (1998). 영어학습동기, 학습전략사용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이진숙. (2005). 영어어순 이해 학습과 학습자의 학업적 효능감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이효웅. (1996). 한국 중·고등학생의 태도와 동기가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 51(2), 3-34.

- 임영숙. (2006).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유형, 교사신뢰,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장현석. (2007).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수준과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전병락. (2002). 영어쓰기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활용 방안,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전윤식. (1976). Anxiety and Academic Achievement,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 보, 제 12집, 19-35.
- 정숙경. (2001). 자기 주도적 학습의 재개념화와 교사중재, 동아교육논총. 제27집, 77-92.
- 조해정. (2007). 학생들의 과학교사에 대한 신뢰와 과학성취도의 관계, 미 출간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최정희. (2004). 교사의 변환적 지도력과 학생의 수업 참여의 관계,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2(4), 1-22.
- 허은호. (2001).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동기간의 관계, 미 출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Adams, K. S., & Christenson, S. L. (2000). Trust and the family-school relationship examination of parent-teacher differenc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grad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5), 47-497.
- Baker, J. A. (2006).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 211-229.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Hoy, W. K., & Tschanen-Moran (1999). Five faces of trust: an empirical confirmation in urba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School Leadership*, 9, 184-208.
- Goddard, R., Tschanen-Moran, M., & Hoy, W. (2001). A multilevel examination of the distribution and effects of teacher trust in students and parents in urban elementary schools. *Elementary School Journal*, 102(1), 3-17.
- Kesner, J. E. (2000) Teacher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child-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8(2), 133-149

- Lee, G., & Schallert, D. L. (2008). Meeting in the margins: Effects of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n revision processes of EFL college students taking a composition cours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SECLAN-218.
- Macintyre, P. D., & Gardner, R. C. (1989). Anxiet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 Toward a theoretical clarification. *Language Learning*, 39, 251-275
- McAllister, D. J. (1995). Affect- and cognition-based trust as foundations for interpersonal cooperation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1), 24-59.
- Mills, N., Pajares, F., & Herron, C. (2007). Self-efficacy of college intermediate French students: Relation to achievement and motivation. *Language Learning*, 57(3), 417-442.
- O'Conner, E., & McCartney, K. (2007). Examining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achievement as part of an ecological model of develop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4(2), 340-369.
- Pajares, F. (1996). Self -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 543-578.
- Skinner, E. A., & Belmont, M. J. (1993). Motivation in the classroom: Reciprocal effects of teacher behavior and student engagement across the school yea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71-581.
- Tschannen-Moran, M., & Hoy, W. (1997). Trust in schools: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4), 334-352.
- Wubbels, T., & Vrekelmans, M. (2005). Two decades of research 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in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3, 6-24.